**항아리의 노래**

김자연

순이네 집 옥상에는 항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고추장 항아리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순이 할머니가 고추장을 퍼 가시겠지? 순이 할머니는 고추장에 오이를 푹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말이야. 뭐든지 고추장처럼 화끈한 게 좋아. 얼마나 정열적이야! 미적지근한 것은 딱 질색이라고!“

“또 흥분하는군. 너는 그게 문제야. 너무 성격이 매워서 남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줄 모르지. 생각해 봐. 중요한 것으로 하자면 소금을 담고 있는 나지.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 소금을 아끼고 지켜야 해.“

소금 항아리가 팔짱을 끼며 말하였습니다.

“흥! 너는 역시 남을 칭찬하는 데에도 짜구나. 너는 모든 일에 너무 인색해!”

고추장 항아리가 얼굴이 벌겋게 되어 소리쳤습니다.

“허허, 또 흥분하였네. 이제 그만하자고. 소금이든 고추장이든,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는군. 하기는 저기 있는 금 간 항아리를 좀 봐. 언제나 비어 있잖아?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으니까 누가 관심이나 가져 주겠어?”

소금 항아리는 고추장 항아리의 말을 듣고 금 간 항아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아니래. 금 간 항아리와 같이 산다는 게 창피해.”

“나도 그래. 여보게,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함께 노래나 부르자고!”

순이네 집 옥상에는 노랫소리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금 간 항아리는 슬퍼졌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쓸모없는 몸으로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벼락이라도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 게 나아!“

금 간 항아리는 마침내 울먹였습니다.

‘하필이면 야구공이 왜 나에게로 날아왔을까? 담 넘어 날아온 야구공 때문에 즐겁던 내 인생은 달라지고 말았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옥상에 얌전히 있었을 뿐이야. 나는 이제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어. 이건 너무 억울해!’

밤이 깊어 갔습니다. 금 간 항아리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금 간 항아리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금 간 항아리는 바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도 괜찮을까요?”

금 간 항아리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고추장 항아리와 소금 항아리도 눈을 크게 뜨고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였어요?”

“당신에게 앉았다 갔으면 해서요. 하루 종일 골목을 돌아다니며 감나무 잎과 오동나무 잎을 흔들고 놀았더니 다리가 아프네요.”

“정말이에요? 내 가슴에 들어와 쉬어 가겠단 말인가요?”

“다른 항아리 가슴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이 가득 담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네?”

“물론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금 간 항아리는 바람에게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바람은 금 간 항아리 가슴에 안겼습니다.

“아! 참 편하네요. 당신은 편안하고 따뜻하군요.”

“하지만, 나는 금 간 쓸모없는 항아리인걸요.”

“당신이나 저 항아리들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그릇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요.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항아리, 소금을 담으면 소금 항아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바람 항아리가 되겠네요?”

“어디 바람뿐이겠어요? 달빛을 담으면 달빛 항아리, 햇살을 담으면 햇살 항아리.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아무 것도 담지 않고 비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 잖아요?”

“정말인가요?”

“그렇고말고요. 비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지요.”

금 간 항아리는 바람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동안 금이 간 모습만 탓하고 가슴을 열지 못하였을까? 왜 쓸모없다고만 생각하였을까? 가슴을 열자, 가슴을. 더 활짝.’

그러자 금 간 항아리 가슴에 달빛이 가득 담겼습니다. 금 간 항아리는 달빛을 꼬옥 껴안았습니다.

‘아, 난 달빛을 담을 수 있구나! 별빛도, 햇살도, 하늘도 담을 수 있구나!’

금 간 항아리는 기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밝은 달 아래, 순이네 집 옥상에는 희망의 노래가 은은히 울려 퍼져 갔습니다.

# 글을 읽고 나서 #

1. 글에 나오는 낱말 뜻을 알고 배워 보세요. (영어 뜻으로 알려 주기)

1)항아리 2)화끈하다 3)정열적이다 4)미적지근하다 5)질색이다

6)흥분하다 7)인색하다 8)벼락 9)울먹이다 10)하필이면

11)뒤척거리다 12)머뭇거리다 13)목이 메다 14)옥상 15)은은히

2.순이네 집 옥상에 있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을 골라 보세요.

|  |
| --- |
| 기름, 김치, 간장, 고추장, 장아찌, 된장, 쌀, 소금 |

3. 항아리들의 이름은 어떻게, 왜 그렇게 불려졌나요?

( )

4. 고추장 항아리의 성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

①화끈하다 ② 정열적이다 ③미적지근하다 ④흥분을 잘한다

5. 항아리들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 )

6. 소금 항아리와 고추장 항아리는 금간 항아리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 )

①자랑스럽다 ②창피하다 ③불쌍하다 ④훌륭하다

7. 금간 항아리는 왜 몸에 금이 가게 되었나요?

( )

8. 글을 참고하여 서로 어울리는 낱말에 선을 그으세요.

1)팔짱을 • • 깊다

2)금이 • • 메다

3)밤이 • • 끼다

4)목이 • • 가다

9. 바람은 왜 다른 항아리에게 들어갈 수 없었나요?

( )

10. 다음 중 바람이 금간 항아리에게 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

①조금 쉬었다 가도 괜찮을까요?

②당신은 편안하고 따뜻하군요.

③똑같은그릇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요.

④당신은 비어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11. 다음은 금간 항아리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괄호 안에 번호를 써 보세요.

1)금간 항아리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 )

2)금간 항아리는 바람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 )

3)노랫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금 간 항아리는 슬퍼졌습니다. ( )

4)금간 항아리는 기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 )

5)금간 항아리는 바람에게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 )

12.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  |
| --- |
| 달빛을 담으면 ( ) 항아리, 햇살을 담으면 ( ) 항아리.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아무 것도 담지 않고 ( )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것을 ( ) 수 있잖아요?”  “정말인가요?”  “그렇고말고요. 비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 )가 있다는 거예요. ( )이 있는 거지요.” |

13. 아래 <보기>를 참고해서 주어진 낱말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  |
| --- |
| \* ~ㄹ 바에야 차라리 ~하다.’ 의 문형 연습 |

<보기> “쓸모없는 몸으로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벼락이라도 맞아 부서지는 게 나아.”

☞ 졸다, 공부하다, 자다

( )

14. 나는 언제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 )

15. 새로 배운 낱말 확인 학습 – 12개의 숨은 낱말 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학 | 송 | 다 | 화 | 뒤 | 무 | 인 |
| 질 | 항 | 리 | 척 | 끈 | 추 | 색 |
| 색 | 아 | 거 | 랑 | 히 | 하 | 하 |
| 이 | 리 | 뭇 | 울 | 은 | 필 | 다 |
| 다 | 서 | 머 | 먹 | 은 | 이 | 하 |
| 정 | 열 | 적 | 이 | 다 | 면 | 분 |
| 벼 | 락 | 병 | 다 | 상 | 역 | 흥 |

1)항아리 2)화끈하다 3)정열적이다 4)질색이다 5)흥분하다 6)인색하다

7)벼락 8)울먹이다 9)하필이면 10)뒤척거리다 11)머뭇거리다 12)은은히

16. 고추장 항아리, 소금 항아리, 금 간 항아리, 바람의 역할에 맞게 준비한 간단한 대본으로 역할극하기 (발음하고 표현하기 쉽게 간략히 정리한 대본을 준비한다.)

17. 마인드 맵 사용하여 글의 내용 되돌아보기

18. 위에 쓴 것을 참고하여 줄거리를 써 봅시다.

# 글의 심화 학습 #

1.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자세히 배워보세요. (영어 뜻으로 알려 주기)

☞ 글의 내용 중에서 – “뭐든지 고추장처럼 화끈한 게 좋아. 얼마나 정열적이야! 미적지근한 것은 딱 질색이라고!“

|  |
| --- |
| 1)정열적이다 2) 소심하다 3)인색하다 4)자상하다 5)온순하다  6)내성적이다 7)외향적이다 8)활발하다 9)무뚝뚝하다 10)고집스럽다 |

2. ‘사이시옷’의 쓰임

두 말이 합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ㅅ’이 끝소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ㅅ’을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 글의 내용 중에서 - 순이네 집 옥상에는 노랫소리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  |
| --- |
| 1) 노래 + 소리 = 노랫소리 2) 나무 +잎 = 나뭇잎 3) 나무 + 가지 = 나뭇가지  4) 해 + 빛 = 햇빛 5)바다 + 가 = 바닷가 6)아래 + 이 = 아랫니 |

3. 한국의 장 문화 – 장 담그기 (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한다.)

☞ “ 콩이 된장으로 변해요! “

1)메주콩을 물에 불려 삶아서 절구에 찧어요.

2)네모난 메주틀에 콩을 담아 모양을 만들어요.

3)네모난 메주를 만들어서 따뜻한 방에서 말려요.

4)메주를볏짚으로 묶어 매달아요.

5)서너 달후면 하얀 곰팡이가 펴요.

6)봄이 오면 항아리에 소금물과 메주를 담아요. (균을 없애기 위해 붉은 고추와 숯을 널어요.)

7)건더기를 건져 내고 국물을 졸이면 간장이 돼요.

8)걸러낸 건더기에 소금을넣으면 된장이 돼요.

(참고로 된장의 효용에 대해서도 알려 주기 - 음식의 간을 맞추고 영양이 많아 암을 예방함)

4. 한국의 장독 - 숨을 쉬는 장독의 특징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한다.)

☞ 장독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흙은 입자 크기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이 불규칙한 입자들이 아주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이 숨구멍들은 공기는 투과하지만 물이나 그 밖의 내용물들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독 안에 김치나 기타 발효음식들을 넣어 저장해 두면 독 바깥에서 신선한 산소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발효 작용을 돕는다. 또한 공기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음식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기도 한다.